

취/재/요/청/서

신 : 언론사 검찰 담당 부서
발 신 :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제 목 :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날 짜 : 2017년 12월 07일(목). 오후 1시. 민변
문 의 : 김용민 변호사 (010-9181-1495)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1. 2017. 12. 6.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은 국정원 내부자로부터 제보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 댓글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범행을 수사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30일 검찰은 국정원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짜 사무실과 허위 서류를 급조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태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너무나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의 지탄이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위 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로부터 불과 1년 뒤인 2014년 3월, 소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이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였지만 국정원은 1년 전에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했던 행태를 그대로 재연하여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력화하였던 것입니다.

4. 이러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수사기관으로서 국정원 스스로가 그동안 행사해왔던 수사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5. 이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짜사무실을 급조하고 허위 자료를 조직적으로 제공한 국정원 담당자를 형사고발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마땅히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들은 간첩조작을 하였고 재판 중에는 증거위조까지 하였으며 증거위조가 밝혀지자 자신들의 범행을 덮기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대체 막강한 수사력을 행사했던 조직의 모습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6.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관련하여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고발을 기회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의미, 그리고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고발의 취지를 설명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인단